

서문 - 들어가는 말 _4

1. 회귀 - 이정훈 _8

2. A양의 소회 - 이유경 _27

3.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과로하다는 것을. - 해미 _52

4. 그럼에도 모든 시간을 긍정하기 위하여 - 유정 _66

5. 죽거나 죽지 않고, 망하거나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도모하기 - 윤형신 _76

나가며 _98

들어가는 말_ 이유경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서울시 목동의 영어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3~5년 주기로 위기를 매년 맞게 되는 것 같더라.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취업, 승진, 결혼, 자녀 계획 등등.. 특히 아이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분기점과 함께 3~5년의 위기를 함께 뛰다 보니 더더욱 그렇게 보이더라고.” 영어학원 선생님의 말마따나 정말로 그제 사람사는 일이라면, 그냥 묵묵히 견디며 자연스럽게 수순을 밟아야 할까. 다들 한번씩 겪는 일이라지만, 정말로 어떻게 겪어가는지 서로 이야기할 여유도 드러낼 마음도 없다면, 누군가의 눈에는 자기를 제외한 모두가 꾸역꾸역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괴롭고 억울한지를 소리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끄끙 아파하고 있는 지금이다.

요즈음 더더욱 그렇다. 짧게는 4년, 길다면 그 이상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 점점 바뀌어갔다. 무게가 다르다. 웃음 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도. 미래를 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보기 직전에 그렇게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수많은 상자들을 요목조목 뜯어보고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현재를 맞닥뜨린 마음 상자의 속앓이도 잘 꺼내 놓지 않는 모두들이 넘쳐나는 와중에,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는 건가 싶다. 다들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나와 같이 안타까워하던 한 친구는 책의 한 부분을 나에게 공유해 주었다.

“나는 누구도 자신의 언어와 생각, 경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경험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삶은 부끄러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익명 게시판’ 같은 공간이 아니면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대한 증언이라고 격려한다. 나는 이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회에 대한 증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기호씨의 저서 ‘우리가 잘못산게 아니었어’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소개해준 친구도 남에게 자신의 사정을 잘 풀지 않는 편이었다. 상대가 알아먹을 때까지 적군이건 아군이건, 나의 몸을 포함하여 전부 불을 질러야 직성이 풀리는 나와, 상대편 앞에서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상상한 그녀. 우리 둘은, 다른 세명을 모아 갈림길에 맞서서 담담한 증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아낸 자기의 말들이, 선택의 순간에 서성이며 쓴 글들이 새로이 건강한 선택지로 이어지기를 빌어본다.

1. 회귀

1. 설국열차로부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를 본 기억이 난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거대한 기차에 작은 사회를 만들어 달린다. 기차는 멈출 수 없지만 어디론가 향하지도 않는다. 정해진 경로에 궤적을 그릴 뿐이다. 야심한 밤, 창문에 컴퓨터를 하는 나의 모습이 비친다. 창 너머의 세상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 방안의 풍경이 검은 창문을 빈틈없이 채운다. 창문 너머 밤의 세상이 몹시도 궁금하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방안의 환한 빛, 나, 컴퓨터, 책상, 침대뿐이다. 창문 한쪽에서 어둠을 발견한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선을 옮겨 보지만 어둠 너머에 보이는 것은 불이 꺼진 채 열려있는 화장실이었다. 고개를 돌려 불 꺼진 화장실의 거울을 본다. 좁은 원룸의 풍경 너머로 창문에 비치는 원룸의 풍경이 보인다. 마치 거대한 기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덜컹거린다. 갑자기 빨라진다. 기차가 갑자기 빨라질 때면 불안하다가도 금세 적응한다. 느려질 때도 마찬가지겠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린다. 멀미가 난다 싶을 때는 빠르게 알프라민을 찾는다. 평정을 되찾고 자리에 앉는다. 오로지 컴퓨터를 통해서

만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는 지금 이 순간 컴퓨터 밖의 세상을 의심해 본다.

사람들도 나도 처음부터 기차에 타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차 밖의 삶을 막연히 상상해 본다. 따스한 햇살, 좋은 공기, 기분 좋은 새소리로 가득 찬 숲속에서 나는 누군가와 뛰어논다. 열매를 채집하고 사냥도 한다. 어렵게 얻은 음식이니 물론 땀쯤은 개의치 않는다. 가끔은 목숨을 간신히 건지기도 한다. 마을로 돌아가 가족들과 삶의 기쁨을 나눈다. 상상만으로도 광희(狂喜)의 콧노래가 나온다. 기차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기차 밖의 삶이 그림다. 사무친다. 조그만 원을 그리며 뛰어본다. 초원을 질주해 마땅한 내 다리에 줄 수 있는 것이 이뿐이라 매우 미안하다. 나를 본다. 아니 느낀다. 나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있음을 느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발톱은 자라고 있다. 나의 손가락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 할까 고민해본다. 온몸에 감각이 가득 차니 한없이 무거워진다. 책상 위의 선인장도, 주위를 맴도는 모기도 몸이 이리 무거울까. 무거워지니 침전한다. 움직이기가 힘들어 주저앉는다. 벽이 보인다. 이 벽 너머에 있는 다른 칸의 누군가도 기차 밖의 삶이 그리울까.

기차의 마지막이 궁금하다. 어떤 모습이며 누가 살고 있을까? 만약 기차의 마지막이 있다면 그곳에 사는 어떤 것은 기차에 가장 마지막에 탔으리라! 끝이 있기는 한 걸까? 그 사람

도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끄덕여 줄까? 어쩌면 기차보다 더 끔찍한 기차 밖의 세상에 대하여 울먹이며 하소연할지도 모르겠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든다. 기차의 맨 마지막 칸이 없으면 어떡하나 무섭다. 기차의 끝이 없다면 기차가 세상인 나에게도 기차 밖의 세상이 기차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겠다. 나의 가장 첫 번째 조상마저도 기차에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졌을지 모른다. 기차 밖의 삶이란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온다. 내가 직접 가장 마지막 칸으로 가야겠다. 그리하여 이 기차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봐야만 되겠다. 정말 내가 바라던 행복한 삶이 있을까?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한다. 차분해지자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다. 뒤 칸으로 가는 어두운 통로 앞에서 주저앉고 만다. 내가 지금부터 가봐야 몇 칸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끝까지 갈 자신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컴퓨터 앞에 다시 앉는다. 내가 들어본 사람 중 기차의 가장 뒤에 있을 법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메일을 보낸다. 그곳은 어떤지, 나보다 나중에 기차에 탄 사람들은 기차 밖의 세상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기차의 끝은 어떤 곳인지 물어본다. 나는 그 사람이 탐험가였으면 좋겠다. 기차의 맨 마지막을 향해 누구보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결국은 기차의 끝에서 기차를 잡을 그런 초

인(Übermensch)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장이 왔다. 그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에서 꽤 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기차의 끝은 아니었다. 그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기차 밖의 세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차 밖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진다. 그러나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이 있다. 그보다 먼저 떠난 여행가들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은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기차 밖으로 나갔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언젠가 기차 안으로 기차 밖의 삶을 옮겨주며 복음을 만들어주기를 기도한다.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하다. 그리하여 나는 초원을 뛰놀지 못하는, 숲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는 나와 모두를 위해 직접 숲을, 초원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기차 밖을 상상해 본 적 없는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만들어주는 일이리라! 나름 멋지다. 사실 꽤 만족스럽다. 창문 너머 어두운 터널에 내가 만든 숲이, 초원이 짝 찬다. 그곳으로 가려 하지만 차가운 창문뿐이다. 그곳에서 뛰어놀 누군가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언젠가 기차가 이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창밖의 풍경을 마주하는 날이 올 때, 내가 만든 이것과 비슷하기를 소망해본다. 나를 가로막는 창문이 원망스럽다. 창문에 머리를 박아 보지만 머리에서는 애꿎은 피만이 흐른다. 기차를 만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오른다. 그 악당은 아마 지금도 새로운 기차의 칸을 만

들며 기차의 꼬리에 붙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기차는 태초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있는 곳이 기차 밖의 밖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분노에 가득 찬 나는 기차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다. 기차의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기차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가는 것인지 대답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기차의 맨 마지막 칸에 대하여 질문해야겠다. 기차 밖의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다. 한편으로는 내가 만든 숲과 초원을 사랑하고 싶다. 어쩌면 기차의 앞칸은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싱그러운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기차 밖의 풍경이 내가 만든 숲, 초원들과 비슷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언젠가 기차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 다른 누군가보다도 더 먼저 도착하고 싶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기차에서 내릴 것이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기차의 맨 앞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맨 앞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무지는 나를 조금하게 만든다. 끝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빨리 가는지 느리게 가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기차의 속도보다 느린 것이 불만족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딘가를 향해서는 가야 한다. 앞칸의 소식은 나를 잘 전달된다. 아예 비관적이지는 않다.

... 다음 칸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다. 시끌벅적하다. 다들 기차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아마 이 사람들도 기차 밖의

삶에 대하여 아는 모양이다. 매우 신이 난 나는 사람들에게 설 틈 없이 떠든다. 내가 꿈꾸는 기차 밖의 삶에 대하여, 그곳의 행복에 대하여 목이 터지게 역설(力說)한다. 내가 만든 숲과 초원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들의 것도 살펴본다. 역시 기차 앞쪽의 사람들은 말이 통한다! 다들 기차에서 내릴 날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해 이리도 힘들게 앞쪽까지 왔으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을 선동해본다. 기차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를 비웃듯 뒤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누군가는 결국은 맨 끝에 도착할 것이라고 외쳐본다. 그리고 어찌면 그는 기차 밖으로 나갈 것이다. 곳곳에서 함성과 냉소가 터져 나온다. 모두 기차 밖의 세상과 뒤쪽 칸의 이야기에 열광한다. 그러나 아무도 선 뜻 나와 함께 뒤로 가지 않는다. 심지어 앞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냉소가 머금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가장 먼저 앞쪽에 왔던 사람들 역시도 기차의 질주에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기차를 몰고 있는가? 기차 밖의 삶을 동경했던 그들 역시 기차의 마지막 칸에 기차 밖의 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기차는 기차의 맨 꼬리 칸을 향해 달린다. 사람이 기차 속을 지나가는 속도보다 기차가 훨씬 빠르니 일리는 있는 말이다. 그러나 맨 마지막 칸을 향하는 길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다만, 탈선한 기

차는 더 달릴 수 없음만이 확실하다. 탈선한 기차는 맨 마지막 칸은커녕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 기차를 달리는 사람들은 곧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차에 가장 처음 들어온 그들은 기차의 속도를 누구보다 맹신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빠른 기차를 이용해서 기차의 맨 마지막 칸에 도착할 것이고 기차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차 밖으로 나가려 한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 환멸이 느껴진다. 어느 날 기차가 기차의 맨 마지막 칸에 도착했다고 하자. 그러면 기차는 빙글빙글 도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세상이 기차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될까? 어찌면 그제야 우리는 완전한 세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가만히 있는 기차를 중심으로 도는 우주라니! 기차는 도대체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돌고 있는 기차는 속도의 변화도 없겠다. 새로운 곳을 탐험할 필요도 없겠다. 다만 기차 밖의 세상도 없어지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사람들은 여전히 떠돌고 있다. 기차 밖의 세상에 대한 동경은 마지막 칸에 대한 신비로움이 된다. 이 신비로움에 대한 열망은 결국 기차의 속도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진다. 기차 밖의 세상에 매료된 이들은 곧 기차에 매료되었다.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에도 이 사람들은 이리도 소중한 아름다운 기차를 절대 버리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기차의 맨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탐험가도, 엄청난 속도로 기차를 달리고 있는 기관사도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었다. 좀 더 섬세히 말하자면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기차의 앞쪽과 뒤쪽이 같다면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혼란스럽다. 온몸이 붕 뜬다. 그래 봐야 기차 밖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알프라민을 한 알 더 먹는다. 이제 두 알만 더 먹을 수 있다. 떠올랐던 몸이 ‘쿵’하고 떨어진다.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연다. 모기장도 걷는다. 내 앞에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검은 벽이 굳건하다. 여전히 기차 안이다.

언젠가는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 사막이나 초원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다들 가는 몽골도 좋겠고 타클라마칸 사막도 꼭 가보고 싶다. 물론 스마트폰은 들고 가야 한다.

2. 멋진 신세계로부터

올더스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고 있노라면 나는 확신한다. 디자이너는 시대라는 감옥에 갇혔다. 시대 너머를 바라보지만 시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답답한 사람이다. 물론 디자이너만 갇힌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갇혔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미래를, 과거를 봤던 디자이너는 그 희열을 안다.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기분에 취한다. 이윽고 중독된다. 시시한 일상에 질린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디자이너의 일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소마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미래에 대한 동경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조금 섞으면 금방 소마가 된다. 무엇이 미래의 동경이고 무엇이 과거의 향수인지는 병에 라벨이 붙어 있으니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물론 어느 날 헛갈리면 앞으로는 영영 소마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여하튼 소마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포드 기원 156년(예수 기원 2019년)이지만 여전히 소마는 솔직히 그저 그렇다. 아직 한참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

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완벽히 사회의 불행을 종식 시킬 진통제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이 그렇듯 소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잘 만들거란 정말 어렵다. 가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연구소에서는 괜찮은 걸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나 무함마드가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들의 비법을 알고 싶어 미치겠다. 소마는 분명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니 그 엄청난 품질의 고전적 소마들도 시간이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이겠다. 소마는 미래에 대한 동경과 과거에 대한 향수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시대가 변하면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변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마를 만드는 나에게는 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소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결국 소마를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소마를 만들 것이 아니라 소마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소마를 만드는 완벽한 알고리즘을 찾아야 한다. 소마를 생산하는 컨베이어벨트의 알고리즘에는 시간이라는 변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전에 생산한 소마들 또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입력한 컴퓨터가 꾸준히 완벽한 소마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가장 멋진 신세계의 가장 달콤한 보상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소마나 만들겠다고 평생을 머리를 싸매는 것은 무척이나 낭비다. 알

고리즘 하나면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매일매일 펜과 종이를 만지작거리는 나의 삶은 얼마나 비참한가! 소마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소마를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물에 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달리려 해봤자 내 발을 밀어줄 지표면은 없다.

어려운 고민에 지친 나는 소마를 하나 먹는다. 최고다. 이리도 멋진 신세계가 나에게 소마를 만드는 임무를 준 것은 당연히 행운이겠다. 소마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재밌는 일이다.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그냥 만들면 된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역시 좋은 소마와 좋지 않은 소마를 구별하는 일이다. 이렇게나 어려운 것이 없다. 예전에는 나에게 소마를 만드는 일이 주어진 이유는 내가 소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소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나머지도 좋아하는 소마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소마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나니 소마를 기피하게 되었다. 마치 바리스타들이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듯이, 워터소플리에들이 평상시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듯이 나 자신의 소마 섭취를 관리함으로써 더 좋은 소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의 노력에 비웃음으로 일관한다. 더 좋은 소마를 만들려면 더 다양한 소

마를 먹어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소마를 먹는다. 저 많은 소마들을 다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그저 더 많은 소마를 먹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 저들은 소마 돼지다. 소마를 잘 만드는 것과 잘 먹는 것은 분명 다르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많은 소마에 리뷰를 남기는 정도겠지! 아마도 저들은 소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리라.

소마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다. 특히 싸구려 소마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소마 돼지들도 소마를 만들 수 있다. 보고 있노라면 조금이라도 품질이 높은 소마를 만들기 위해 고행에 가까운 삶을 살며 기회가 닿는 대로 미래와 과거를 탐닉하는 나의 삶에 회의가 든다. 누구나 만드는 소마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나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이리도 멋진 신세계가 왜 나에게 굳이 소마 만드는 일을 준 것일까 원망스럽다. 그러면서도 확신한다. 저런 싸구려 소마들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 봐야 소마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정도겠지.

나는 믿는다. 나의 의지는 계승될 것이고 소마는 발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포드 기원 600년¹이 넘어갈 때쯤에는 완벽에 가까운 소마가 사람들의 불행을 종식시켜 줄 것이다! 그곳에

1.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포드기원 632년을 배경으로 한다.

서는 행복이 어렵지 않다. 진통제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익스피어는, 괴테는 야만인들의 상징으로 돌아가야 한다. 멋진 신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잔재는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몰아내야 한다. 인간의 삶을 유성생식으로부터 해방해 줄 열쇠는 내가 지금 만드는 소마에 있음을 확신한다.

소마가 만들어줄 멋진 신세계는 어떤 곳인가? 사람들은 더는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먹는 행복이 그들의 삶을 노력으로부터 해방해줄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머리가 아파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완벽한 신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뛰어난 소수만이 남을 것이다. 모두가 지적일 필요도 없다. 사용하지 않는 뇌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포도당을 소비할 필요도 없다. 고의로 멍청한 사람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괜찮다. 노력이라는 전염병이 완치된 세상에서 그들이 차별받거나 슬퍼할 일은 없다.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흐른다. 소마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도 지루한 작업이지만 언젠가 이 소마가 가져다줄 멋진 신세계를 상상하며 나오는 흐르몬은 지루한 시간과 사용한 포도당에 대한 괜찮은 보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괜한 노파심이 든다. 지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고고학자들이 야만의 파편들에 사로잡히면 어떡하나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이 소마도 다시 외면당할까?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소마를 더 잘 만들면 된다.

3. 마치며

미래의 경험을 탐닉하는 디자이너는 거창한 예술을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직접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작은 행복들을 연구하고 파는 사람이랍니다. 가끔은 저도 제가 인지공학자인지 진화심리학자인지 철학자인지 헷갈리지만 결국 당신에게 소개해주고픈 작은 행복으로 이 모든 것이 귀결된답니다.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는 것은 인간을, 세상을 분해하고 재조립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따금 내가 분해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더 큰 행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불행하니 과거는 행복했는지, 미래는 행복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인류의 삶의 자취를 따라다니다 보면 행복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힘든데 왜 사냐는 질문에 답이 없는 것이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행복들이 자본의 선전(propaganda)임을 알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마약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마약 아닌 마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젊은 디자이너입니다.

2. A양의 소회

이유경

A양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작업이라는 행위와 자기 자신,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실로 가변적이구나. 순서나 인과가 명확해서 궤적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것 또한 아니라서 예의주시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녀는 되뇌었다. 그것은 아마 A양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녀 스스로에게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작업이란 것을 배설하지 않아도 복잡미묘한 인간이란 것이 작업을 하다니, 엔트로피만 높아질 따름이네. 복잡미묘한 개념어를 오용하면서, 밀가루인지 젤리인지 모를 희어멀건한 것을 주걱으로 들어서 락앤락 바구니에 털썩 내려놓는다. 안에 담겨있던 물이 그 반동으로 튀겨나갔지만 아랑곳 않고 손 한뼉 정도 되는 너비의 붓으로 고이 갠다. 공기가 걸쭉한 액체와 급히 뒤섞이면서 작은 공기방울들이 뽀글뽀글 돌아난 것이 꼭 수백개의 눈알 같다.

보는 눈이 많네. 손에 들고 있던 용액을 천 위에 부어 작은 도량을 만든다. 그녀는 그것을 가차없이 가로로 쓸어내렸다. 눈은 많아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은 없다. 각자가 볼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 그렇게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려 본다. 바깥스 안에는 여전히 징그러운 눈알들이 데굴 데굴 굴러다닌다.

아우성치던 거품들이 하나, 둘 가벼이 터지더니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전부 잠잠해졌다. 허무하다. 무기물과 달리 유기

체인 인간은 훨씬 상위의 존재라고들 일컫더니, 젓소를 이제 막 물에 개어냈을 때 보다 더 많은 양의 거품으로 걸잡을 수 없이 스러져 갔고, 그 사이 놀라울 정도로 사회가 진보해 왔을 지 언정 알맹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풍차를 겨누어 돌진하는 돈키호테가 불행할까, 아니면 그를 탄생시킨 세르반테스¹본인이 불행할까. A양은 바탕칠을 마무리한 텅 빈 캔 버스를 노려보다, 제 공허함을 뚝뚝 떠다니는 사념들로 우겨 넣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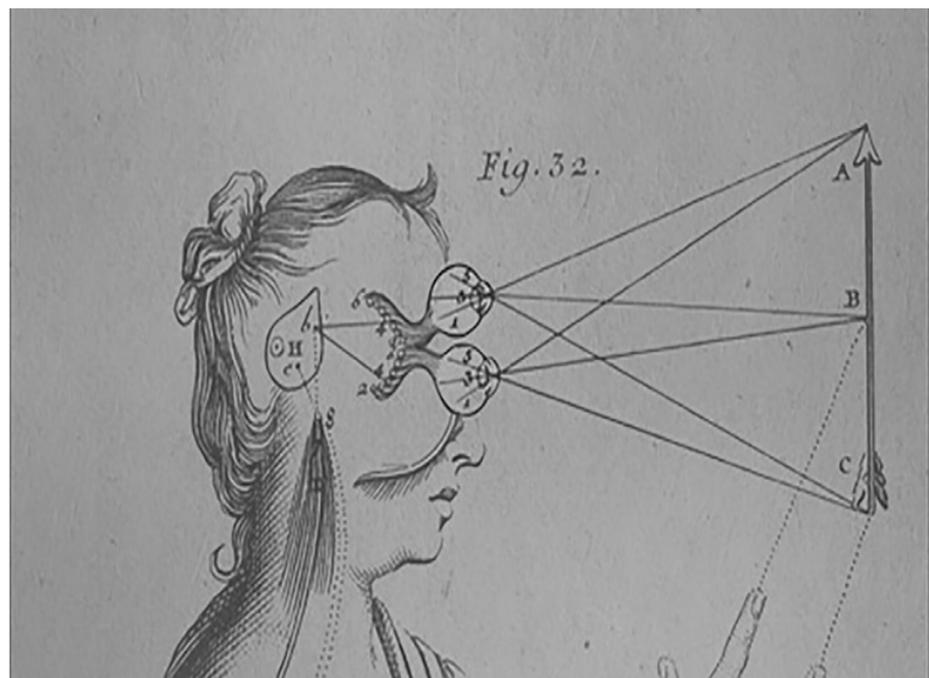
“자신이 보는 시야 안에서²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보이느냐?

그 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12)

1. 산타 미구엘 세르반테스(1547~1616)는 돈키호테 1부를 발표하여 대단한 인기를 모았으나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제 2부를 완성했으나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위키피디아)

2. 히브리어 원어 ‘רָא’는 영어로 ‘narrow’ 혹은 ‘hasty’라는 의미를 뜻한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번역본의 영어 구절은 “Do you see a person wise in their own eyes? There is more hope for a fool than for them” (Proverbs 26:12)

Fig. 32.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신도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서 39권 중 22번째에 해당하는 잠언에서 주는 격언이다. 잠언 25~29장은 기원전 715~686년에 남 유다를 통치하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재 편집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그 격언을 언급한 솔로몬 왕 본인은 그보다 약 3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으로 추정된다. 즉 다시 말하면, 최소 약 200년 전부터 최대 3000년전의 고대 인간들은 일찍이 그들 스스로의 확증 편향성을 경계하라 일렀다는 말이 된다. 반면 21세기 동시대의 어떤 이는 A양에게, ‘인간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달힌 소용돌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최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려는 시도는 결국 무의미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누가 A양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든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혹여, ‘나는 틀렸고 내 무덤을 내 손으로 팔 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그녀는 덜덜 떨었을 뿐이었고, 붓을 잠시나마 내려놓으며 그동안 어느새 그려졌을 자신의 모습들을 멀찍이 윤곽이라도 조감해 보기로 한다.



A양은 누군가의 딸이다.

부모에게 딸이 원하는 작업이란, 불효이다. A는 혼하디 혼한, 진부하다를 넘어서 누구나 한번쯤 우려먹은, 고이 접어 놓은 생각들의 구김살을 펴서 늘어놓고 되새김질한다. A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느 날 던져진 존재였고, 온전히 ‘운’ 혹은 ‘신의 예정’으로 일컬어 지는 것에 맡겨져 좋은 부모를 만났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와 달리, 부모는 그들의 반자율 의사로 자녀를 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한 보살핌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무이다’라는 사회적 합의 내지는 당위를 다소 들이 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현재의 삶과 그녀가 그리는 미래의 삶을 스스로 합리화할 수 없었다. 그래, 욕심이다. A는 자신의 민낯을 지긋이 노려본다. ‘어느 정도여야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까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이 각 가정마다 다르고, 그 기준은 자본에 따라 계층화되어 두각을 드러낸다.

“네 오빠가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학업 과정은 아버지께 필수일지는 몰라도 -

너는 옵션Option이다.”



받은 것이 많을 수록 자율성은 위태롭기 마련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A는 언제나 머리로 알면서도, 받을 때 마다 항상 달콤했다. 달콤한 것을 넘어 무감각해졌다. 무감각을 넘어 권태로워졌다. 권태로워진 자기자신을 자책했다. 죄책감을 유도해서 A의 행동을 클릭질 하는 것 또한 이젠 효과를 다 했다. 그저 심연속으로 가라앉는 그녀를 건져 올리려, 정신을 강건하게 하라는 말들을 부모님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으나 A에게 닿지 못했고 그녀의 주변에서 어설피게 맴돌았다. 그들에게도 불어나는 무기력과 함께 지내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은 창호지로 둘러싼 쪽방 안으로 스며오는 최루탄 가스를 들이마시고 내쉬며 살아야 했고, 또 한사람은 굶이진 골목길에서 나와 새벽에 출근하고 3교대를 밥 먹듯이 해야 했다. 20대 초반부터 떠밀려 사회에 나가야만 했던, 그리고 바지런하게 일할 수 있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고급예술을 향유하지는 못했을 지 언정 자신들의 목소리를 차츰차츰 키워 올 수 있었다. A는 우울해졌다. ‘잃어버린 20년’³의 문지방을 이미 넘어버린 우리나라에서 그녀는 부모세대의 서사를 따라 반복한다고 한들 비슷한 수준의 영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더욱이 A의 작업은, 현대 미술은, 특정 수준의

3. 잃어버린 20년(失われた20年)은 일본에서 거품경제 붕괴 후 1990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한 기간을 말한다. 일본 경제는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노선인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찾았다. 2017년에 이르러 일본은 장기적인 플러스 성장세로 안착하고 주식, 부동산, 취업률에서 모두 상승세를 기록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키피디아)

위치를 점유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존의 자본을 들이 붓는다 해도 절대로 투자된 양을 수복 시킬 수 없었다. A양은 자기가 사랑하는 미술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어쩌다 삶과 작업이 왜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 걸까.

A양은 동시대 제도권 미술가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이다.

동양화과가 버젓이 있는데 이름이 회화과인 학부가 있는 미술대학교 안에서, 그녀는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충실하고 학문으로서의 작업을 지향한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게 느껴왔다. 그러나 그녀는 분기점에 서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했다. A의 형제는 그녀에게 말했다. “최소한 어떤 분야가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이 수반된 연구가 누적되어야 하는데, 미술사학이나 미학이 아닌, 작업을 전개하는 작가가 학문을 연구한다고 일컬을 수 있을까?” 인문사회과학을 위한 자리도 현저하게 열악한 이곳에서, 학문적 정체성도 위태위태한 것을 연구하는 학생 혹은 작가를 일종의 학자로서 대우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술’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학문으로서 다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A의 학부모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들에게 기예로서만 여겨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예이기도 한 미술은 시각적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아름답게 쉬이 물신화 될 수 있는 캔버스나 조각상들을 해체와 탈형태를 지향하는 다른 장르의 미술들에 비해 비교적 친근하게 여긴다. 그리고 관습적인 형태를 띤 미술품들을 인테리어 상품으로서 왕왕 간주하곤 하는데, 막상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자유로이 고급진 인테리어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은 매우 한정적이다. 미술관형 작

업들이 상품으로서 대중에게 민주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순수 학문인가 기예인가 상품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반영되지 않아 더더욱 정체성이 모호한 회화과 내에서, A를 비롯한 그녀의 많은 친우들은 방향성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야 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⁴ 그녀는 오역된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멍하니 읊조렸다. 그들은 어느새 갈림길 앞에 서서, 미뤄왔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디자이너, 타투이스트,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 페인터, 사진가, 현대미술가... 어느 선택을 내리더라도 탈 미술을 하지 않는 한 모두 칠하고 그리는 행위를, 혹은 이미지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된다.

4. 본래 뜻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오래 살다 보면 내 이런 일(죽음)이 생길 줄 알았지.”



A양 또한, 칠하고 그리는 행위를 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회화과에 들어온 이들 중, 칠하고 그리는 행위와 물감의 물질성에 매료되지 않은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어렵פות이 생각해 본다. A는 혜화동의 마로니에 공원을 동기들과 함께 산책하며 야외 스케치를 했던 추억을 찬찬히 더듬어 본다. 드로잉 북 위에서 색채가 주는 희열을 자유롭게 누리던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그녀는 그리워했다.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소재에 대한 흥미, 그리고 A의 지인들로부터 받는 사소한 찬사는 그녀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원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물질 자본을 구하고자 한다면 애초부터 취업을 목표로 해야 할 일이었다. 소중한 기억들을 아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설사 갤러리를 통해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타겟팅 한다고 한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리가 만무하다. 이 선택지도 그녀가 페인터를 지향하기 때문에 꺼내 볼 수나 있는 것이고, 개념미술과 퍼포먼스작업을 취급하는 컬렉터를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그녀는 이 딜레마를 좀더 진실되게 고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로지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고민인지를 점검해 본다. 동시대 미술과 거리를 두는 페인터나 일러스트레이터의 포지션이 다른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녀가 학교 등지의 교육 기관에서 배워온 것에 따르면 미술이란 어찌되었든 역사화

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데 -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행적 역사관이 허상이냐 아니냐는 일단 제쳐두고 - 과연 무수한 사람들이 떠다니는 은하속에 소박하게나마 작은 방점을 찍어보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서 계속 바지런히 노력할 수 있을까? 부지런한 행동 없이 제도권으로부터 호명될 수 있을까? 페인팅과 현대미술이 교차하는 영역을 찾으려 금전적인 여유를 어느정도 내려놓고 바쁘게 살아간다 할 지라도, 심신의 건강이 아작 날 정도로 곤고해진다면 그림에도 작업이 즐거울까? 아니면 전혀 소박하지 않았던 그 욕망을 - 작업을 원망할까? 만약 정부나 기업차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작업 활동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투잡을 뛰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서 그녀는 4대보험이 보장되는 정규직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고, 직장을 갖더라도 작업을 위해서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관된 수준의 작업을 계속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든, 갤러리든, 대안공간이든, 어떤 단체로부터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정도의 작업물이 인간적인 욕망들을 어느정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구현되려면,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전시에 불리기 위해서는 전시를 해야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참으로 우수우면서 슬프다. ‘맛집투어’나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와 같은 삶의

한 부분을 포기하면서, 사업 공모에 번번히 떨어지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올곧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나마 지원사업이 몰려있는 30대를 지나 어떤 미래를 맞이하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자족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A양은 프란츠 카프카만큼 호탕하지는 못했다.⁵ 40대 이전에 자리를 단단히 다져놓지 못하면 수직낙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A양과 같은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방비해 놓은 수는 사실상 전무하다. ‘최초예술지원 사업’ 또는 ‘소액닷컴’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들도 지원자들이 몰려 확률게임으로 소급되어가는 마당에, 작디 작은 개인의 힘으로 대안이라는 것을 개척하긴 어렵다. 1인 영웅의 시대는 지난지 오래다. 어느 시대와 어느 지역의 게임이라도 그 내부에서 유행하는 담론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판이 좁고 향유층이 적어 다소 심하게 이리저리 휘돌리는 이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포스트인터넷 담론의 인기가 절정을 찌를 때, 한철 지났다고 여겨져온 주제를 심도있게 재창안 하려던 작가는 남은 선택지로 존버만을 골라야 한다. 만약 어떻게든 더 나은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인이 다루던 매체나 주제를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옮겨간다면 애초부터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경기가 나쁠 때는 미디어 작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페인팅이 여기저기 유통되는 이 쳇바퀴 속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

5. 카프카는 사후 그의 모든 서류를 소각하기를 유언으로 남겼으나,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Max Brod)가 카프카의 유작, 일기, 편지등을 출판하여 현대 문학사에 카프카의 이름을 남겼다. (출처 위키피디아)

력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에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가 민첩하게 적응하기는 쉬워도, 막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 다른 클릭질이었다.

생존하기. A양은 짧지만 무거운 말을 입에 올려본다. 미술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과 헌신 끝에 태어난 자신의 작품을 참으로 특별하게 여겼겠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며, 한정된 자원은 특별하다고 소위 공증된 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곤 한다. 그것이 본래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 그것을 전제하는 일이거나 그렇게 일이 귀결되어 버리곤 한다. 전문성 측정이 타 분과에 비해 비교적 어려운 순수미술이라는 영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자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일 뿐.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 원시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팽팽하게 생존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으려는 것이 애석하게도 살아남기에 더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쉬워 보이는 길로 선회한다면 결이 다른 고민들을 하고 다른 종류의 실패들을 경험해 가겠지만, 적어도 응석부리는 철부지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A양은 아직 젊은 청년으로서 실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타고난 특권이였다.

운이 좋은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으려 최 대한 구체화된 미래를 브리핑 해보려 노력했다. 한눈에 보기 좋은 지도를 그리는 것을 선호하는 그녀는, 불안에 못 이겨 촉지가능한 표본을 찾기 위해 울타리 바깥으로 도망쳐 다녔

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깨달았다. 순수 미술계에서 살아남기엔 순수한 개인의 선호와 의지만으로는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을. 언젠가 맞닥뜨릴 막연한 미래가 공포스러운 나머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질문을 하며 반자율적인 미술계를 헤쳐나갈 구멍을 모색했다.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담론에 맞추어 작업하고 관련 전시에 호명되는 것과, 유행과는 좀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신의 작업의 면모들을 글로 잘 정리해주는 친구를 통해서 작업을 선보이는 것, 둘 중 어느쪽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JH작가님은 정황을 파악하고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 또한 전략이라고 A에게 말씀하셨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많은 선대 작가들이 제 1세계로부터 담론을 수입해서 한국의 맥락에 맞게 작업을 변용해 왔고, 전후 단색화 세대를 제외하고서 판을 새로 짠 세대가 있느냐고 그녀에게 되물으셨다. 자기PR과 네트워킹을 베테랑답게 해내는 그분 앞에서, 그녀는 씩씩한 얼굴로 ‘만약 그런 경우가 존재했다면 아마 이미 한국미술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을까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방도가 있지 않을까,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 자신의 주관도 남의 주관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그녀는 계속해서 발품을 팔았다. GR작가님은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오윤과도 같은 민중미술 작가군의 케이스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 외부 환경과 상관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탁월히 해내는 작가님의 내면은 강하고 단단했으며, 남에겐 언제나 상냥했다. 반면 이리저리 휘둘리는 A양은 홍성담, 임옥상 등의 작가님들처럼 꾀꾀할 자신이 없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걸까. A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느날 룡다리계단에서 DH작가님을 만나 서로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마침 사포질을 하다 발에 자꾸 채이는 무거운 돌을 딛 자리로 옮기려 끙끙거리고 있었다. 풀이 우스워 보일까 하던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작가님과 눈을 마주치고 말했다.

‘도와줄까’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신 그분은 A에게 입모양으로 그렇게 여쭙주셨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막간의 정적은 그녀로 하여금 뭘해야 할지 몰라 어쩔줄 모르게 했다. 아마 그녀는 그분과 짧은 대화라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돌을 잠시 내려놓고, 다가가는 와중에 발에 흙이 끌려 버적버적 소리가 났다. A는 긴 나무의자에 앉아 계시던 그분과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벽돌로 된 난간에 애매하게 걸터앉아 동일한 질문을 여쭙어 보았다. 그녀가 듣게 된

대답은 의외의 것이었다.

“서울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무조건 서울에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거야.

유행과 재조명 혹은 호명, 이렇게 납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닐 수 있어.”

DH작가님은 이따금씩 제도권 바깥의 미술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찰하곤 한다고 말씀하셨고, A는 스스로 그 바깥의 영역들을 보려 하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커다란 화환을 받아 기쁨에 겨워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작가와, 작가가 그린 따스한 꽃 그림을 좋아하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다. 인플루언서 작가들끼리 뒤에서 펼치는 나름의 세력싸움과 전략이 존재한다. 알다시피 제도권이라는 경계와 단어의 정의 자체도 참으로 포괄적이었지만, 그 가상적인 운동장 내에서도 세대별로, 장르별로, 목표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른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불안을 탈출하려 많은 것을 보고 습득하려고 했지만, 보아온 수많은 것들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감정은 여전했다. 다른 관점을 얻어보려 할 때마다 ‘너에게 그 말을 해준 상대가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걸러 들어’라는 말이 돌

아왔고, 그런 당연한 상황들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오직 담론 형성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라 사업가지. 작가님의 말이 여운을 타고 찬바람이 되어 정신을 맑게 만들었다. 사업가적 면모를 지닌 작가가 존재한다면 A라는 유형의 작가가 있을 수 있고, A라는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바탕이기도 했다. 그녀는 젓소가 마르는 사이 캔버스를 떠나 가로수 길을 거닐었다. 로마식을 본 따 만든 타일들을 밟아가며, 밤하늘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무겁다. 선택지 바깥의 선택지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삶이 무겁긴 마찬가지였다. 과거든 지금이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도록, 신은 인간이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여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⁶ 방향을 제시하는 화살표들이 제각기의 모양대로 흩어져 있는 이 밤에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 밤하늘의 별들을 이어 별자리 지도를 그릴 수 없도록 거리의 불빛들은 너무나도 시끄럽다. 각양각색의 색조를 뿜내며, 불빛을 쥐고 있는 이들은 여기저기서 그녀에게 말한다. 너는 무엇이나.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중에서 어떤 색을 고를테냐. 찬란하게 뒤엎힌 빛들은 칠흑같은 하늘을 더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당신들이 쥐고 있는 색상의 손전등에 따라 나를 비춰 보겠지, 밤하늘의 별들을

6. 전도서 7장 14절

가려가면서. 그녀는 그렇게 아직 스스로 빛날 수 없음에 탄식하다 캔버스가 있는 깊고 검푸른 공간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새하얗거나, 혹은 셋노랑계. 그 안을 가득 채울 것을 다짐하며. 그녀는 다음의 말을 거리에 두고 돌아왔다. 당신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볼지 선택할 수는 있어도, 나는 옵션이 아니다.

3.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과로하다는 것을.

해미

글에 앞서, 수많은 예술가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휴학을 했다. 의도하지는 않았다. 수강신청이 완전히 망해 버려서 떠밀리듯 하게 된 휴학이었다. 그런데 휴학 확정 첫날에는 해방감에 눈물이 났고, 휴학 중에는 마치 처음부터 학교 같은 것은 다닌 적 없다는 듯 일상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복학해야 하는 내년을 앞둔 지금은 시간을 간절히 붙잡고 싶다. 휴학을 하며 자신의 템포를 되찾은 몸과 정신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적신호를 보낸다. 점점 확신이 든다. 나는 확실히 과로한 삶에 치이고 있다.

휴학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것을 시도해보았다. 일단 눈을 뜨고 싶을 때 이불에서 일어나고 눈이 감길 때 잠에 들었다. 이것이 나의 템포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는 공부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들추어보고, 여행도 다니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마음껏 약속을 잡았다. 아쉬운 건 그 사람들 모두를 만나지는 못한 것인데, 다들 각자의 시간에 쫓겨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무엇보다 원래 관심이 있던 분야에서 일도 해보았다.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평소 어쩔 수 없는 존재의 권리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왔던 바다. 그런데, 조금 의아할 수도 있다. 분명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쓰는 글일 텐데 갑자기 활동가? 아, 사회참여적인 작품을 만드나? 아니. 나는 작품을 만들지 않는, 어쩌면 내 전공과는 거리가 매우 먼 활동을 했다.

내가 일하던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고, 죽

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활동하였다. 그중 내가 맡았던 일은 모든 언론을 살살이 뒤지며 한 달 동안 사람이 몇 명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다. 알고 보면 지킬 수 있던 목숨을 위해, 앞으로 지켜야 하는 목숨을 위해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씩씩하게도, 책임소재와 개선방향은 항상 똑같았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들로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7월부터 글을 쓰는 지금까지 다섯 달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오육십 명이나 죽는다. 물론 이는 언론에 남겨진 사람들만 따졌을 때다. 이 죽음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노후한 안전장치를 새것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결국 떨어져 죽고, 사람이 없어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죽고, 질식해 죽고, 불살이나 물살에 감겨 죽는다. 그중 나의 눈을 끈 것이 있다. 바로 ‘과로’로 인한 죽음이었다.

내신에 목을 매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내가 한창 자퇴를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그 시기 ‘피로 사회’라는 용어가 곳곳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인터넷에서는 피로 사회를 “성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로하게 되는 사회”라고 한다. 그때는 몰랐다. 왜 <피로 사회>라는 적나라한 제목의 책의 보라색 표지에서 소설 <소나기>에

서 소녀의 죽음을 뜻하던 보라색 꽃이 떠올랐는지. 그 시절을 되돌아보는 지금은 알겠다. 공부를 안 하면서 불안했고, 불안해서 안 했고, 하면서도 불안했고, 불안해서 했고. 그 시절 나에게 보라색은, 끝없이 원을 돌다가 숨이 막혀 도망을 치고 싶다는 적신호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불안과 피로감을 조금씩 적응해나가는 친구들과 이미 적응한지 오래인 ‘어른’들 속에서 나는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피로사회는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과’하게 피’로’가 쌓인, 이른바 과로 사회.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같이 교복을 입던 시절부터 피로라는 것과 친해져야 했을 것이다. 마치 이 세상을 버텨내기 위한 통과 의례와 같이. 무더졌다고 생각하던 사이, 피로는 과로가 되어 우리를 조금씩 옥죄고 있다. 내가 내 안의 과로를 들여다보았던 이야기를 당신에게 해주고 싶다. 이 글을 읽는 동안이라도 당신 역시 당신 안의 과로를 마주할 수 있길 바라며.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휴학하기 전, 나는 내가 속한 과에서 영상 소모임을 했다. 처음 소모임 소개 영상을 봤을 때, 왠지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노래가 좋아서 또 보고, 편집의 절묘한 타이밍이 좋아서 또 보고. ‘들어가 보면 좋겠다’가 ‘꼭 들어가야겠다’가 되었다. 입부 시험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이 입부 과제를 너무 잘 해오면 떨어질 텐데, 쪽팔리게. 난데없이 입시 이후 씻겨나가지 않은 경쟁심이 발동하였고, 그만큼 골머리를 앓았지만 다행히도 소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웃기게도, 소모임을 붙고 나니 새로운 걱정이 피어올랐다. 과 수업 과제하기도 죽을 맛이라던데. 꾸준히 해야 하는 소모임 과제는 어떻게 하지? 게다가 우리 소모임 과제가 힘들어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많다던데. 몸이 갈려나가겠구나. 하지만 난 그 소모임의 과제들을 별로 안 남는 시간에도 어떻게든 욱여넣어 해냈다. 어떻게 보면 전공 수업과 과제보다 소모임에서의 활동을 우선시했다. 그만큼 애정이 컸던 탓이다. 무거운 장비와 소품들을 들고 다니면 다음 날 온몸이 욱신거렸고, PC실에서 영상을 편집하다가 쪼그려 자다가 수업에 가면 눈이 감겼다. 그래도 결과물이 나오면 뿌듯했다. 아쉬워도 좋았다. 갈려나가도 괜찮았다.

그러다 1학기가 끝났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졸업전시를 위해 졸업작품을 찍는 선배들이 스태프를 뽑기 시작했다. 나와 동기들은 순전히 관심도에 따라, 혹은 시간 여유에 따라 스태프를 지원했는데 나는 그 시절 내가 참여할 수 있던 모든 작품에 스태프로 참여했다. 내게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기억들이다. 그 기억들은 나로 하여금 영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물음을 갖게도 했기 때문이다.

촬영 현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공간임에도 조용해야 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배고파도 배고픈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또, 쪽잠을 자서 피곤했어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어야 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 같지만 하여간 그랬다. 배우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는지 아닌지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마이크 붐대를 들고 있다가 깜빡 졸아 옷 스치는 소리가 나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다시 찍어야 하니까. 알다시피 학생은 돈이 없다. 그러다 보니 촬영 장소를 최대한 적은 시간 동안 빌려야 했다.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바로 추가 지출로 이어졌다. 평소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현장에서 배우가 움직이는 라인을 잡기 위해, 검정 마스크 테이프를 바닥에 표시하고 있었다. 요령이 따로 없었던지라, 아마도 내 모습이 선배들에게는 요령이 있는 사람들 보다는 굵떠 보였을 것이다. “너 테이프 그렇게 느리게 뜯으

면 욱 먹어.”라고 반농담 반진담으로 선배가 말했다. 선배들이 공감하며 웃었다. 나도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 뒤로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이후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다. 급박한 분위기일 때는 웃음기조차 없었다.

또 한 번은, 스태프로 함께 참여하는 모르는 선배 한두 명이 반말을 했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을 불임성이 좋거나 위계적인 것이 몸에 밴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어쩔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말을 하니 참, 예의가 없구나. 그런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아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촬영 현장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한 요구가 재빨리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고압적인 쏘아붙임. 그때 그 분위기는 내가 익히 들던 것들과 같았다. 자신보다 밑에 있는 스태프 탓하기 문화, 혹은 말단의 스태프를 부품 취급한다는 방송 현장의 관습들 말이다.

어떠한 작품에 내가 하나의 보탬이 된다는 느낌, 점점 일을 빠릿빠릿하고 익숙하게 했을 때의 만족감,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동료들과의 끈끈함, 무엇보다 작품이 완성되고 큰 스크린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의 느낌. 스크린에 적혀 있는 내 이름. 그것들이 잊히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쪽의 필드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학을 하고 나서도, 가끔 촬영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연락이 올 때면 생각만 해도 설레고, 그런데 시간이 안 되면 아쉽고 그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었다.

그 장벽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름 없이 남아있었다. 그러다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며, 한 피디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2016년 방영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의 조연출이었다. 나도 입시를 다시 준비하며 띄엄띄엄 보고 큰 위로를 받았던 드라마였는데, 그 뒤에서 사람이 죽었다니.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던 작품을 보며, 모순적으로 나는 행복을 바랐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죽음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추적했다. 추적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아팠다. 단순히 그 죽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사연과 나의 사연이 자꾸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처럼 청년 시절,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삶에 연대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추어버린 그의 과거가 어찌면 지금 나의 현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의 삶을 되짚어 나갔다. 그가 학교에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동기들을 사로잡았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했는지, 부당한 것에 어떠한 재치로 맞섰는지, 어떠한 세상을 꿈꾸었는지. 그의 꿈은 소수자와 약자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지지 않는 곳을 온전히 비추는 작품을 만드는 것. 그들의 삶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고, 또 그 작품을 통해 더 많은 가려진 삶과 소통하는 것. 내가 꿈꾸던 사회참여적인 작품이기도 했다.

그의 첫 직장에서의 첫 업무는 현장의 다양한 팀들과 소통하는 조연출이었다. 말이 좋아 소통이지, 모든 팀의 업무를 관리하고 급할 때는 팀에 합류까지 해야 했다. 밝혀진 바로는, 55일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의 수면 시간. 이조차도 통화 기록을 통해 미루어본 정도일 뿐이다. 뜬눈으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어쩌다 그가 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그에게 폭언과 모욕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에겐 잠을 안 자는 편이 마음 편했을지도 모른다.

끝없는 피로, 아니 과로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가 해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또 있었다. <혼술남녀> 방영 초기, 제작팀은 방영 초기에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였고, 그 결과 워선에서 갑작스레 계약직, 장비팀 스태프를 해고하였다. 작품 제작 이전에 일정 근로 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해고되면 언제라도 그것을 뺏어내야 하는 시스템. 그는 ‘계약금을 뺏어내라’고 그들을 압박하는 역할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말대로, ‘비정규직의 애환을 모를 리 없는’ 그에게 이 업무는 한없이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후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그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나는 이 한 마디가 바로 내 마음속 장벽의 이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갈려나가도 되나?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해도 괜찮나? 아니, 그래야만 좋은 작품이 가능한 것인가? 애초에 이런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나?

과로를 통해서만 증명되는 예술. 이게 내가 바라던 것일까. 나의 답은 NO였다.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삶을 경멸한다. 여태까지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 ‘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이러면서까지 해야 할까.’

_ 과로에 적응해버린 어른은 되기 싫다

많은 예술가들은 나처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꿈을 안고 예술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통 필드의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속히 말하는 ‘입신양명’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세상인데, 선생님과 교수님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노력과 진심이라는 말뿐이었다. 혹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주목받는 재능.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고, 나 또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말해주지는 않았다. 물론 과로의 끝에서, 예술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는 과로해야만 예술이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으며, 그 과정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를 마주하고 나니, 나의 과로를 단순히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버티면 그 끝에는 내가 꿈꾸던 것이 있을까?

이 고민을 안고 학교로 돌아가자니, 도무지 내키지가 않는다. 나는 그 쳃바퀴 안에 나를 다시 끼워 넣어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 이 정도다. 나를 돌보는 것, 내가 괜찮은지 몸과 마음

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주변을 둘러보는 것. 틈틈이 주변인들이 괜찮은가 살펴보는 것. 이제는, 쏟아지는 과제를 꾸역꾸역 해내는 그들에게 차마 쉬엄쉬엄하라는 농담조차 꺼내기 어렵다. 모두가 느끼는 부담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적은 나의 재능을 인정받는 하나의 통로로 여겨지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그나마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결국은 또 과로를 통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 씩씩하지만, 그 압박감과 몸부림 위에 말을 엮기는 쉽지 않다. 그저 나와 그들이 괜찮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보다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모두가 과로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던 사회에서, 과로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생긴다면. 그 숨통을 요구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인다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좋은 예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늙어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본다.

4. 그럼에도 모든 시간을 긍정하기 위하여

유정

과거에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 정작 중요한 건 지나쳐온 채 무언갈 미친듯이 쌓아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랬고, 대학을 졸업하는 지금이 그러하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건 깔끔하게 포기해서 자신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으려 했다. 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내 손 바깥으로 밀어버려 무기력해지지도 않으려 했다. 그리고 내가 내린 이 선택들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이다. 애초에 이 판이 나에게 준 선택지가 얼마나 있었나? 최선의 선택이라는 건 이미 정해진 답안지이지 않았을까? 정말 나는 이미 정해진 답안지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 그동안 성실하게 임해왔던 것들은 어디까지가 자발적이고 어디까지가 강제적인 걸까?

운이 차고 넘치게도 내 손 안에는 좋은 선택지들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좋은 운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고 보니 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어있었고 내 손으로 밥도 못 해먹는 덜 자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되돌아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들이 종종 보였고 그 때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마저도 바쁜 일상에

서 스쳐지나갈 뿐이었다. 몰라도 되었던 나의 계급과 적극적으로 모르려고 했던 나의 무지가 매우 매우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화가 난다. 내가 최선의 선택지라고 여기면서 일상에 채워넣었던 것들로는 왜 최소한의 것들을, 내가 시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자잘한 일들을,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관계 맺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까?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가 되지 못하다고 여겨진 시간들이, 모든 것을 유예하며 준비라는 이름이 붙은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묻는다면 대답할 자신이 없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고, 성인이 된 후의 대학생활은 최소한의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 외부에서 배우고 얻은 것들이 훨씬 많았고, 살아보지 않은 길이어서 비교하기 힘든 걸 알지만 그래도 대학에 오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배움을 얻고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짙은 아쉬움이, 그리고 빛 바랜 화가 남는다. 한 학기에 500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왜 대학에서 채우지 못 한 갈증을 채우러 다닐 수 밖에 없었는지. 대학을 다니면서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면서도 왜 그런 마음으로 4년을 꾸역꾸역 다녔는지. 되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지만, 졸업을 마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대학을 올 필요가 있었나 물어본다면 대답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한 달 후면 나는 스펙 하나 없는 백수가 될 터이다. 그리고 미술계에 머무르지 않는 이상 내가 배워온 것들은 쓸모가 없어질테고 어딘가에선 이 나이 먹도록 뭘 하면서 살았냐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름있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무례함을 어느정도는 거를 것이다. 그럴 땐 내가 꾸역꾸역 학교를 다녔음을 감사할지도 모른다.) 나를 모르고 하는 무례한 말들을 들어도 내가 겪어온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내 경험들이 오갈데가 없어져 버리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메인다면, 정말 나에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혹은 나에게 남아 있더라도 생계를 꾸리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졸업하고 나서도 ‘나를 이루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걸 놓지 못하고 또 다시 생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누군가에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반복하겠지. 정말 내가 어리석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다짐해볼 필요가 있겠다. 나를 내 성취와 완전히 동일시하지도,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지도 않으려 한다. 적게 벌고 적게 소비하는 대신 시간의 향기를 음미하려 한다. 충분히 자기와 괜찮은 식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과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있는 괜찮은 생활이 미래에 언젠가 얻어낼 것이 아니라 현재였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터인데, 내 집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사고 일년에 한 두번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중산층의 삶이라 일컫는 삶일테다. 보통이라 여겨지는 그 삶은 애초에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뿐더러 그 삶에 대한 동경이 없다. 하지만 집이 없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집에서 살고 싶다. 자동차가 없어도 문화생활, 녹지, 병원 등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 그렇다, 지하철에서 본 재개발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오는 말들이다! 역세권, 문화시설, 녹지, 좋은 학군!

앞서 말한 다짐들이 무색해지는 듯 하다. 세상에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들 먹고 살기 위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 듯 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하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눈치 보기 싫다. 미꾸라지처럼 잘 짱구를 굴리면,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탈출구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나만은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싫다. 정해진 정상성 안의 사람들만을 살게 해놓고 정상성을 획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는, 정상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정상인 삶을 선택하지 않느냐며 모든 문제를 개인의 의지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말들에 반기를 들고 싶다. 그리고 이런 생

각을 하는 내가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회는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 스스로를 1인분의 몫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싶다. 아끼는 존재들을 만들어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시간을. 서로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말을 건네고 말을 들을 시간을.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즐거운 대화가 무르익을 만큼 여유를 가질 시간을. 상처받더라도 더디게 회복하더라도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자신을 보살피지 못하고 번아웃 될 때까지 달려온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수습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친구에게.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조차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신세지고 싶지 않아하는 친구에게.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 망설이는 친구에게.

나와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소모적인 경쟁과 비교를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삶의 기준을 자신에게로 되찾아 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유로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더 이상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죽고 두 시간에 세 명꼴로 자살하고 있는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되지

않을까? 매년 수능이 끝나고 자살하는 소식이 들려와도 어쩔 수 없는 일처럼 여기면 안되지 않을까? 여자를 갈아 넣고 넣다가 한계지점까지 와 사회가 존속할 수나 있을지 의문인 이 상황에 절망만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땅을 파헤쳐놓고 뽑아 먹고 버리는 식으로 대해오던 방식이 한계에 다다라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뒤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삶이라는 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데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모두가 알지만 그저 사는 게 먼저여서, 힘이 없어서 누군가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다면, 모두에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각자에게 살 수 있는 돈을 쥐어준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닐테지만, 사회가 끊임없이 들이대는 기준과 그로 인한 자기검열에 맞서고 현재의 자신을 만든 과거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돈이 안 되는 시간들을 각자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자신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개인의 정신력에만 기대지 않도록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무 개인의 선의를 믿는 걸지도 모른다. 기본소득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할 때마다 의문들이 마음 속에 떠오른다. 실은 개인에게 돈을 쥐어줄 것이 아니라 처벌 받아야할 사람이 벌을 받고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기본소득이 최선의 대안이 아닌데다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감정만 앞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변화가 요원해보이는데 당장에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게 보여서,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사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게 보여서, 최소한의 돈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더 이상 누구도 굶어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굶어 죽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주거 등을 자신의 존엄성과 교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돈 때문에 위험을 떠넘겨받지 않아야 한다. 일하다가 과로로 죽는 일터에, 일하다가 다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 일터에, 창의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열정을 갈아넣기를 강요받는 일터에, 누구도 가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누구도 돈 때문에 소진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아픈 이를 돌보는 사람들, 매일 살아내기를 투쟁하는 정신질환자들, 돈이 안 되는 활동을 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느라 소진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돈은 매우 도움이 된다. 세상이 일을 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일을 하고 있어도 돈이 안 되는 사람들, 살기 위해 일하지만 일하기 위해 살게 된 사람들,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튕겨져나간 사람들, 세상이 휘두른

폭력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겐 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여전히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모른 채로 오늘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 나에게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숨 쉴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드는 것을 느끼지만, 누구의 삶도 우연한 옵션으로 남겨두지 않는 그날까지 모두들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끔찍한 세상에서 어떤 이에게는 살아있어달라고 하는 말조차 염치없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계속 살아서 언젠가는 버티듯이 살던 이들이 반짝이며 웃는 날이 오기를.

5.

죽거나

죽지 않고,

망하거나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도모하기

윤형신

졸업을 앞둔 예비 미술인들에게.

은수들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증명사진 찍기

그래서

무슨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고

세상살이는 좇같아요

그것은 정말로 큰 일이었다.

당신의 등뼈로 다투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

소라게의 집

구피를 죽이지 않고 차를 끓이는 방법

가끔 아주 오래된 장판 위에 찍힌
벌레의 발 디딤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점선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의 발걸음도 그러한 것이겠지.
그 벌레들은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더듬이를 깜빡이며.
가벼운 다리에 힘을 싣고.

작년 이맘때는 나의 졸업 전시 기간이었다. 4학년 1학기와 여름방학을 교환학생에 모조리 써버린 후 급작스레 귀국해서는, 그곳에서 배운 삶의 여유라는 가치가 무색하게도 무척 대고 졸전 직전까지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더랬다. 애초에 시도한 탈출도 끝없는 성과를 쥐어짜는 형광등 불빛이 끔찍스레 느껴져 결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천장에서 나를 응시하는, 새벽에 눈을 떠서도 변함없이 켜져 있는 과실의 형광등 불빛이 지겨워질 때쯤 졸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2달 넘게 내리 한 생리처럼, 생활의 무너진 균형을 되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분 단위로 돌아갔던 졸전 이후 눈금 없이 주어진 느슨한 시간을 지나며 차츰 나를 둘러싸고 빠르게 회전하는 세계가, 내면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그 막강한 영향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과 예술을 지속할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한국 특유의 억척스러움에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날렵한 적응력은 갖추기 어려운 동시에 어디서나 유용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어진 강령을 수행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수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옥여넣으며 언어를 바꾸는 등 내가 아닌 다른 초월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기준과 더불어 ‘순수미술’이 요구하는 기준의 하한선은 더욱 가혹하다. 스스로 세운 기준마저 가

혹한 동시에 경쟁 시스템에 그다지 적절하지도 않은 예술가들은 가용한 자본과 시간, 체력과 정신을 일단 모조리 끌어다 쓰며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무언가 완성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앞에서 나열한 모든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돈으로 환원이 가능하니 결국은 돈, 돈의 문제다. 미술에 대한 대중의 빈한한 관심과 한 자리에 수백 명이 응모하는 조건부 지원 속에서 대학 밖으로 밀려 나온 미술 꿈나무들은 내가 유명해지거나 남이 유명해지는, 심하게는 내가 죽거나 남이 죽는 시스템 속으로 빠지거나 뛰어든다.

한국은 자진(自進)¹ 함으로써 자진(自盡)²하는 사회다. 물기는 증발하여 자연히 사라진다. 하지만 흘린 피와 눈물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가 흘린 피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이미 사회의 한 현상이 되었다. 각자 모두는 자신이,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흘린 피를 스스로 닦아야 하는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아연함은 사회적 공감과 수용으로써 해소되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루프 속에서 반복 재생된다. 시각적 자극은 반복으로써 이전의 충격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각자가 느끼는 고통의 감각 또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자살이 개인의 온전한 자발적 선택이 아닌 것처럼 ‘예술’

1. 자진(自進) 남이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섬

2. 자진(自盡) 1.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

2. 물기 따위가 저절로 없어짐

3. 온갖 정성을 다함

을 선택한 이들이 예술을 지속하는 것 또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내포하는, 개인과 사회라는 실로 엉킨 단단한 매듭의 결절점이다. 이 같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예술인의 삶의 조건에 대해 말하는 까닭은 작가에게 고독한 ‘수행자’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고초를 겪은 위대한 ‘순교자’의 이미지를 덧씌워 여타와 구별되는 희소성을 내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더 이상 뛰어난 예술가 개인이 사회의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술가 자신의 생활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언급하고자 함에 있다.

자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폭력은 나와 타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당연하게 설정한 기준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허용치가 되며, 인내의 한계치를 넘었을 때 우리는 가차 없어진다. 얼마 남지 않은 작업 기한 내로 목표하는 졸업 작품의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날의 밤을 새워야만 했다. 작업 개념과 상관없이 1인당 1/n로 배분한 공간을 채우라는 우악스러운 요구에 맞추어 길이 170cm가량의 철조 작업을 하며 가끔은 이웃 작업실 친구에게 내 키만 한 관들을 짜고 있다고 자조했고, 원하는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었다.

스스로가 세운, 혹은 맞추려 든 기준 외에 나를 둘러싼 작업 환경 또한 위태로웠다. 애초에 철조란 각종 전동 기구와 절단 기구, 용접 기구의 사용을 필요로 하므로 각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작업이지만 이에 더하여 학교 내의 철조실은 환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세먼지 수치가 서울 시내의 몇 배에 달하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게다가 졸전 기간 동안 야작을 할 때마다 작업 동지가 없어 철조실에 홀로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했다. 만약 새벽에 크게 다쳐 쓰러졌다고 가정하면 다음 날 일러도 10시쯤에야 발견이 될 테니 꽤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졸업 당해의 연말에는 다른 작업실의 누군가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실려 갔다는 비보가 들려오기도 했다. 다행히 그의 곁에는 작업을 하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나 자신도 무지 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자발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일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 작업에 대한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부피를 차지하는 완결된 형태의 결과물을 선호하는 작가라면 조소 작업은 대개 건강에 나쁘다. 나무와 돌과 같은 무해한 재료를 사용할지라도 갈거나 깎고 윤을 내는 공정에서 나오는 먼지를 마시면 폐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보호장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조 작업에 자주 쓰이는 화학약품 역시 주의를

요한다. 조각가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하나는 FRP³인데, 가볍고 견고하며 작업 효율이 높지만 작업 공정뿐 아니라 사후에 처리에서도 환경호르몬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위험한 재료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두통과 함께 얼굴이 붓고, 생리 주기가 바뀌는 등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해외에서는 한쪽으로 바람을 보내는 송풍기가 구비된 작업장에서, 우주복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만 이 위험 물질의 사용 허가가 나지만 내가 들었던 학부 수업에서는 이러한 화학 약품들을 바람 부는 야외에서 라텍스 장갑한 겹 끼고 후하게도 썼더랬다. 이전 세대에서는 화학 약품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족해 FRP를 맨손으로 반죽하는 괴이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한다. 산업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사후(事後)에 문제 제기는 되었을 터인데 예술인들은 대개 외따로 떨어져 각개 전투를 벌이고, 자기 자신에게 고용되며, 자발적 의지로 작업을 한다는 관념이 있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서야 겨우 문제시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또한

3. FRP :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의 준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의 플라스틱에 유리 섬유를 넣어 강화한 것이다.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액체 상태의 주재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성형하는 재료로, 탭크를 섞어 뭍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환경호르몬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작업자들은 주로 ‘폴리’라고 줄여 부른다.

미술계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졸업 후 사회로 나와 갤러리에 근무하면서 FRP로 다수의 소조 작업을 하는 한 작가를 만날 수 있었다. 작가에게 재료가 몸에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묻자 곧바로 자신이 작업하지 않으면 된다는 답을 들어 한동안 머리가 멍했더랬다. 유명한 작가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 줄 사람은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미술 대학을 갓 졸업한 예술 꿈나무들이 대다수일 터인데, 경험과 지위, 경제적 위계 차이로 인한 노동과 건강의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 외에도 고용주인 선배 예술인들이 본인의 도덕관을 성찰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잠깐 방향을 바꾸어서, 졸업 전시를 준비하며 든 또 한 가지 생각은 필연적으로 나는 얼마간의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경험치가 달리는 한 인간의 미숙함이 폐기물의 대량 생산에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하나, 그 어리숙함을 차치하더라도 졸업 전시를 위해 샀던 많은 양의 재료들은 결국에는 쓰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순수미술의 절대적 기준 하에서,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기준 하에서 작가들이 바지런히 생성해낸 생산물은 작업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전시에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시가 끝난 후까지도 보존될 것과 아닌 것,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양분된다. 그러잖아도 최대한의 효율로 한정

된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예술인들에게 무용한 불량품이 생성된다면 이는 크나큰 손실이다. 작품성이나 상품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시각장의 바깥으로 버려지는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삶의 extra이면서 동시에 extra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 미술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자체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난 일 중 이러한 흐름에서 빠져나온 보퐁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얼마 전 친구가 참여한 단체전에서 나는 작은 실마리를 감각했다. 전시는 사회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성 예술인들이 모여 기획한 금속공예전이었고, 연대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자는 의도는 유의미한 파동을 생성하는 하나의 생명력으로 다가왔다. 나의 지인은 착용이 불편한 장신구를 제작함으로써 신체에 관여하는 문화와 신체에 내재한 본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장신구를 선보였다. 문명 이후를 연상케 하는 하늘 사진을 배경으로, 작품에서 느껴지는 보존성과 유용함, 인간의 미적 욕망과 관련이 없는 미감은 알 수 없는 안온함을 주었다. 케이터링 또한 세심하게 고려되어 다과는 모두 비건으로 제공되었다. 전시를 보러 온 모두가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최소한의 희생을 지향하는 방식은 잔잔한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타자의 고통에 대한 성

찰로부터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장을 가늠하고 자신이 발휘하는 영향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날을 세우고 칼을 휘둘러야 하는 난세를 진정할 긍정적인 힘이다. 사실 도의적인 이유를 제하더라도 음식이 맛있어서 한 번 더 감동했고, 간만에 편안한 친구들과 함께 평온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어 좋았다. 제 감각을 무시하기를 강요당하며 현대를 살아내는, 쓸쓸함을 많이 타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예술인들에게 안전한 사람과 장소, 음식의 감각은 큰 효능을 발휘한다.

정리하자면, 작업을 하면서 죽지 않는 방법으로는 가능한 덜 위험한 재료를 덜 위험한 방식으로 가공하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하기. 성과 중심주의적인 자기 확대를 그만두고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엄격한 기준 완화하기. 과로하지 말기 등이 있다. 자기 신체와 정신을 온전히 통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위대한 영웅들의 신화에 힘입어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철저한 자기 통제로써 홀로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에 갇들어 있는 존재이고, 생명체는 머릿속 이상(理想)의 진취적인 과속보다는 자연이 부여한 성장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신과 육신의 한계가 무엇으로든 극복되기 전까지는 자신을 확대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하자. 이에 더불어 독성을

가진 화학 물질의 적절한 규제, 안전한 작업 공간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과 지나친 경쟁 체제로 인해 개인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공동의 작업이다.

남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는 앞서 말했던 사례에서처럼 작업의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기. 빈곤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 체제 속에서 다투지 않고 함께 연대하기. 동물과 식물, 자연환경과 더불어 공존하는 법 찾기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재료-사회와 환경의 응집물-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해체되어 흘러가는지, 자신이 무엇에서 영향을 받아왔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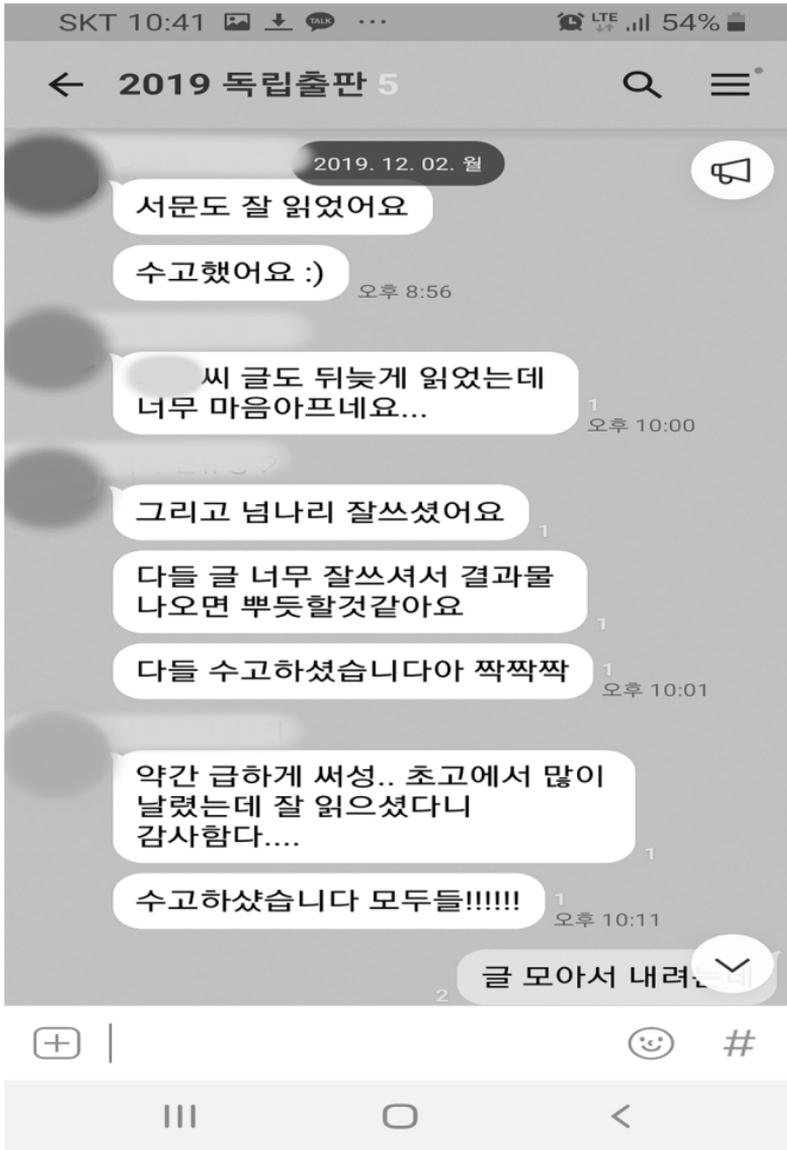
작업을 하면서 생활이 망하지 않는 방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디밴드 ‘브로콜리 너마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음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음악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덕분이라는 말을 했다. 미술에서 역시 작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인지도를 가진 극소수의 작가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호시절도 아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 작업을 팔아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만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술에 관심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비례하여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배출되는 미술 대학 졸업생. 넘치는 스펙을 가진 이들로 이미 과포화 된 제도권의 안과 밖.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절대다수의 예술인에게 작업 이외의 직업은 개인적 삶의 기반을 마련할 필수 노선일 것이다. 유쾌하게 생각해 보면 업이든 취미든 예술 이외에 집중할 일을 만드는 것은 한쪽의 실패에 쉽사리 매몰되지 않는 균형추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환하는 일반적인 ‘직업’의 정의로 자신을 패배자로 정의 내리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직업을 하나 더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생존의 방도 정도이기에 멋진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야겠지만, 일단 뾰족한 수가 없는 나로서는 생활의 부피와 표면적을 최소화한 소인으로 살면서 일과 삶의 균형 잡기를 시도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덧붙여 휴식시간을 가능한 확보하고, 이에 불안감과 죄책감을 짐 지우지 않는 것 또한 부탁하고 싶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작업이 망하지 않는 법을 찾는 것은 분명 많은 이가 주목할 만한 작업을 만들고,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민이 유의미한 작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가늠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지점들은 예술가의 자율성을 제약하기 위함이 아니고, 치열한 자기 통제 하에서 무리하는 이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문제를 예술가 개인의 노력과 능력, 체력과 정신력으로

로 극복하려는 무리수도 아니다. 이는 오히려 주어진 사고의 담벼락에 관한 이야기다. 기나긴 예술의 역사 동안 예술가들은 예술과 비예술, 예술과 삶을 넘나들고 그 경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술’과 ‘예술 너머’에 대해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젊은 작가가 기성의 세상에 제안해 볼 만한 어떠한 사유(思惟)일 것이다. 결국은 어쨌거나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지 않고, 생활이 망하거나 작업이 망하지 않는 공동의 길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여 작업을 지속하는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괜찮을 수 있기를.

나가며



2019 독립출판 5



그리고 넘나리 잘쓰셨어요

1

다들 글 너무 잘쓰셔서 결과물 나오면 뿌듯할것같아요

1

다들 수고하셨습니다아 짹짹

오후 10:01

약간 급하게 써성.. 초고에서 많이 날렸는데 잘 읽으셨다니 감사하다....

1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오후 10:11

글 모아서 내려는데

2

다들 제목도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2

왜이렇게 짹한건지들...

2

TTTTTTTTTTTT

오후 10:27

젊은 예술가니깐요....TTTTTTTTTT
T

오후 10:28



